201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호 : 우리 조는 발표 수업 주제를 '화가 이중섭의 삶'으로 결정했었지? 선생님께서 '발표'는 조장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할게.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누가 맡을 건지 얘기해 볼까?

도윤 : 음, '자료 조사'는 우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채원 : ㉠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미술관에서 이중섭 특별전을 하더라고. 거기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민호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다. '보고서 작성'은 글 잘 쓰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

채원 : 우선 각자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말해 보는 게 어때?

민호 : 그러자. 그럼 도윤이 넌 어떤 걸 하고 싶어?

도윤 : 난 '보고서 작성'이 좋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하는 건 내가 좀 자신 있거든. 근데 우리 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 : 그래? 그런데 ㉡ 그 얘기는 우선 역할 분담 끝내고 하면 어떨까? 일단 도윤이는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채원이 넌 뭘 맡을래?

채원 : ㉢ 지난번에 너희들 우리 집에 와 봐서 알 텐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바로 도서관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자료 조사'를 하면 좋겠어.

도윤 : ㉣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가깝더라.

민호 : 좋아! 그러면 채원이는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근데 서영아, 이제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만 남았는데, 괜찮겠어?

서영 : (머뭇거리며) 난…….

채원 : ㉤ 서영아, 괜찮아. 마음 편하게 얘기해 봐.

서영 : 어……, 사실 난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어.

민호 : [A] '보고서 작성'은 아까 도윤이가 하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서영 : 사실 난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글쓰기는 좋아하거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싶었어.

도윤 : 아, 그래. 서영이가 나보다는 글을 더 잘 쓰더라고. 난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내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볼게. 하하.

서영 : 고마워.

도윤 : 고맙긴 뭘.

민호 : (엄지를 치켜세우며) 오, 도윤이 정말 멋진데. 너희들 덕분에 잘 결정된 것 같아. 모두들 고마워!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② ㉡ : 대화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하여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

③ ㉢ :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④ ㉣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⑤ ㉤ :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A]의 발화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공동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소집단 대화에서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주도자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태도보다는,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다구? 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우선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먼저 얘기한 도윤이의 입장도 들어보자."

② "아, 너도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었구나.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이라도 얘기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가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③ "그렇구나. 서영이 네 생각도 인정해. 하지만 도윤이 입장도 있으니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만약 도윤이가 반대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④ "어, 그래? 그러면 도윤이랑 하고 싶은 게 똑같네. 그러면 서로 입장이 충돌하니까 이따가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⑤ "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도윤이가 얘기한 거 들었지? 도윤이가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 법률 연구소에 계신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법률 상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당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 보겠습니다. 만약 스파이더맨이 도시를 파괴하려는 악당들과 싸우다 남의 건물을 부쉈다면, 부서진 건물은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진행자 : 일반적인 경우라면 건물을 부순 사람이 보상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 정의를 위해 악당과 싸운 스파이더맨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전문가 :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의 행위를 악당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민법 761조 1항에 의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파이더맨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진행자 : 아, 그러니까 악당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스파이더맨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고, 정당행위로 인한 부득이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전문가 : 네, 맞습니다. 그래야 스파이더맨의 경우처럼 불의를 보고 나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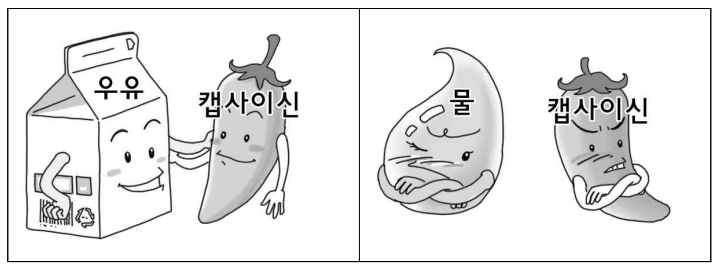
진행자 :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네요. 만약 스파이더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건물 주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민법 동일 조항에서는 정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주인은 악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진행자는 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대담을 진전시키고 있다.
② 진행자는 전문가가 한 말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전문가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전문가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의 오해를 바로 잡고 있다.
⑤ 전문가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호입니다. 여러분, '캡사이신'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못 들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웃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양고추를 먹다가 매워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물을 마셨는데, 매운 맛이 가시기는커녕 점점 더 매운 맛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원래 식물이 곰팡이나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자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은 아주 매운 맛을 내고 몸에 열이 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왜 매운 맛이 가시지 않을까요?
(슬라이드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그림을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캡사이신은 서로를 멀리 합니다. 따라서 혀를 자극하고 있는 캡사이신을 물로는 잘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캡사이신과 우유는 서로 친해 보이지요? 이 두 물질은 모두 무극성이라는 공통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지요? (웃으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면, 무극성 물질이란 분자 내에서 전자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캡사이신은 극성 물질인 물에 더 잘 녹을까요? 아니면 무극성 물질인 우유에 더 잘 녹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유에 더 잘 녹겠지요.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모두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면,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는 무극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맛을 없애려면 물 대신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다음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도입
 – 발표할 내용 제시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임을 강조 ····· ㉠
○ 전개
 – 캡사이신의 특성 제시
 – 캡사이신의 화학적 속성 제시 ····· ㉡
 – 캡사이신의 다양한 활용 사례 제시 ····· ㉢
○ 정리
 – 청중의 이해도 점검 ····· ㉣
 – 발표 내용 요약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위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표자의 실제 경험을 들어 흥미를 유발한 것 같아.
②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③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자의 심리를 잘 드러낸 거 같아.
④ 상황에 맞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⑤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 같아.

[6～7] 다음은 학생이 학교 신문의 독자투고란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학급회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자습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학급회의 시간에 학생들은 학급의 다양한 문제를 의논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학급의 문제들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C] 제가 최근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학급회의를 거의 열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소극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D] 물론 학급회의를 열어도 의견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회의를 했을 때뿐이지 회의가 반복되면서 소극적이었던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 이 글을 읽는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께서도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급회의를 좀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6. 윗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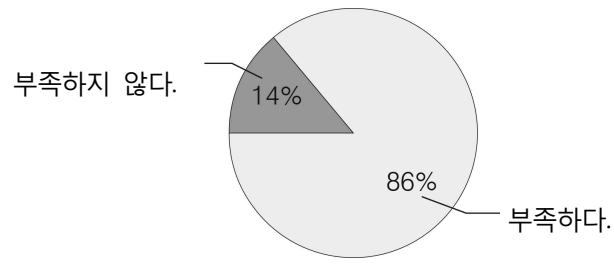
① 필자가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 설정한다.
② 주제와 관련된 필자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③ 필자가 인식한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문제와 관련된 예상 독자의 이해 수준과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글의 내용을 구성한다.
⑤ 필자의 글이 실리는 매체가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한다.

7. 윗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설문 조사(우리 학교 학생 대상)

1. '학급회의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응답



2. 학급회의가 필요한 이유

학급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37%
학급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6%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24%
기타	13%

(나) 전문가 의견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면 청소년들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게 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학급회의 시간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합니다."

(다) 관련 자료

학생들은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등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지속적인 회의 참여 경험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① [A] : (가)-1을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제시한다.
② [B] : (가)-2를 활용하여, 학급회의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③ [C] : (나)를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④ [D] :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⑤ [E] :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 편성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료]
> 교실 자율 좌석제는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 앉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친한 친구들끼리 앉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교우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 [조건]
> 1.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 2.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① 자율 좌석제는 학습 효율을 높여 줄 수 없다. 학생들이 앞자리에서부터 앉기보다는 뒷자리에서부터 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는 학생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자율 좌석제가 학습 효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끼리만 앉게 되면 교우 관계를 넓히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짝을 바꾸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자율 좌석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자리에 앉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뒷자리를 찾아 앉도록 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자율 좌석제 시행은 시기상조이다.
④ 자율 좌석제는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앞자리에서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율 좌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⑤ 자율 좌석제를 시행하면 키가 작거나 눈이 나쁜 학생들이 뒷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예외적으로 좌석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
> [작문 일지]
> 오늘 작문 과제는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 자기 성찰의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나는 우선 '배려'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얼마 전 학교에서 은정이와 있었던 일이 떠올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도 생각해 보았다.
>
> [학생의 글]
>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지금껏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배려'라는 말뜻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게 하였다.
> 어느 날 은정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 성급한 목소리로 오늘 주번을 대신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 ㉡ 하는데, 주번 활동을 다 하고 나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자 은정이는 내일 아침 내가 해야 할 특별구역 청소를 대신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도 덥고 주번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나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 나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은정이에게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작은 배려로 내일 아침에 귀찮은 특별구역 ㉣ 청소에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참기로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을 배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런데 오늘 '배려'라는 말뜻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진정한 배려를 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내가 은정이를 도와 준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써서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도 배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앞으로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마음을 다해 진정한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정의의 방식으로 '배려'의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한다.
> ⓑ '배려'와 관련된 일상적인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효과를 부각하여 예상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 ⓓ '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조직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다급한'으로 고친다.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하는데'로 고친다.
③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청소를'로 고친다.
⑤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 보 기 >
>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한다. '낳으세요'를 [나으세요]로 발음하거나 '쌓이다'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① '하얗다'를 [하야타]라고 발음한다.
② '좁히다'를 [조피다]라고 발음한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라고 발음한다.
④ '그렇죠'를 [그러쵸]라고 발음한다.
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한다.

12. <보기>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환하다'의 의미로 쓰여 형용사가 되고 '날이 밝는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로 쓰여 동사가 된다.

①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긴 겨울방학이 끝났다.
② 나이보다 얼굴이 젊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③ 봄바람이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④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큰다.
⑤ 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다.

1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3점]

< 보 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14. 다음은 '다의어'에 관한 탐구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보 기 >

ㄱ. 그 분은 아침에 서울로 가셨다.
ㄴ. 너에게 신호가 가면 직접 숏을 해.
ㄷ.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은 간다.
ㄹ. 그렇게 이른 시간에 친구 집을 가 본 적은 없다.
ㅁ.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ㅂ. 물이 어른 무릎쯤 가는 냇물이라 아이들이 놀기에도 적당하다.

(1) ㄱ~ㅂ을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묶어 보자.
(ㄱ, _____) (ㄴ, _____) (ㄷ, _____)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 _____ ㉮ _____

①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
②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
③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나다.
④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⑤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15. 아래의 글에서 <보기>의 ㉮와 ㉯가 모두 나타난 것은?

< 보 기 >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지시 표현, 접속 부사 등과 같은 ㉮ 연결어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유사한 어휘 또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도 표현된다. 이 외에도 ㉯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청소년 목공동아리 '목동'의 이번 활동은 연필꽂이 만들기입니다. ① 먼저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다음으로 치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치수에 따라 나무를 자르는 재단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단된 나무를 잘 배치해서 접착제로 붙입니다. ② 우리 목동 친구들은 잘 아시죠? 접착제를 너무 많이 쓰면 접착제가 나무의 겉면으로 삐져나와 굳잖아요. ③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량만 발라줍니다. 접착제로 다 붙인 후에는 못을 자동으로 박는 목공 기구인 '타카건'으로 나무판들을 고정합니다. ④ 이렇게 한 다음 연필꽂이의 바닥까지 모두 조립하고 사포질을 해 줍니다. 사포질을 안 한 모서리에 찔리게 되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⑤ 사포질을 할 때에는 나무의 결을 따라 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사포질을 마친 후에는 연필꽂이에 칠을 하거나 장식을 붙여 완성합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해를 위해서는 이해의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현대 해석학의 거장인 가다머는 '선이해'와 '지평 융합'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선이해란 어떤 대상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일종의 선입견을 의미한다.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했던 ㉠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이라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선입견은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와 달리 가다머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선입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선입견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로 만들거나 제거할 수 있는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문화나 철학, 역사와 같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에 의해 형성된 사고를 뜻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이해의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선이해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이해의 과정은 어떠한가? 가다머는 이를 '현재 지평'과 '역사적 지평'이 결합되는 '지평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현재 지평이란 인식의 주체가 선이해를 바탕으로 형성한 이해로, 이해 주체의 머릿속에 형성된 지식이나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 반면 역사적 지평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이해의 산물로, 텍스트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지식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해의 과정이란, 서로 다른 두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의 융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어 나간다. 따라서 두 지평이 융합된 결과 형성된 지평은 주체가 기존에 가졌던 현재 지평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과정으로서 지평 융합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주체가 가진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평이 되고, 이것이 다음 이해의 선이해로 작용하며 또 다른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순환 과정을 고려할 때, 이해는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도상(途上)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가다머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16. 윗글의 논지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개념들과 함께 중심 화제 제시
↓
다른 견해와의 대비를 통한 첫째 핵심 개념 설명
↓
(　　)
↓
핵심 개념들을 종합한 중심 화제 설명

① 둘째, 셋째, 넷째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② 첫째 핵심 개념과 둘째 핵심 개념의 관계 설명
③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한 둘째 핵심 개념 설명
④ 첫째 핵심 개념과 대비되는 둘째 핵심 개념 설명
⑤ 둘째 핵심 개념을 통한 첫째 핵심 개념의 보충 설명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입견을 이성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②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각을 중시하였다.
③ 비이성적인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선입견을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18. '가다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민수는 ⓐ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 동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텍스트를 읽고, ⓒ 인간은 선악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민수는 인간 본성에 관한 ⓓ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다룬 텍스트를 읽고, ⓔ 인간 본성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① 민수가 ⓐ라는 현재 지평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 지평과의 지평 융합이 없었기 때문이다.
② 민수는 ⓒ와 ⓓ의 지평 융합을 통해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③ 민수에게 ⓑ, ⓒ, ⓓ, ⓔ는 동일한 시점에 모두 역사적 지평으로 작용한다.
④ 민수의 현재 지평은 ⓑ, ⓓ와 순차적으로 지평 융합하면서 확장되어 간다.
⑤ 민수는 ⓔ에 이르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게 된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는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제품의 여러 브랜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이를 대안 평가라 하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다. <표>는 소비자가 호텔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개의 브랜드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으로, 호텔을 선택하는 평가 기준의 항목과 그것의 순위, 중요도, 평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점수			
항목	순위	중요도	A	B	C	D
위치	1	50%	4	6	6	5
가격	2	30%	5	4	6	7
서비스	3	20%	5	3	1	3

<표> 브랜드에 대한 기준별 평가 점수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

㉠ 보완적 방식은 브랜드의 어떤 약점이 다른 강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쓰인다. 각 브랜드의 기준별 평가 점수에 각 기준의 중요도를 곱하여 합산한 뒤 가장 점수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표>에서 A는 $(4\times0.5)+(5\times0.3)+(5\times0.2)=4.5$이고 같은 방식으로 B는 4.8, C는 5, D는 5.2이므로 D가 최종 선택될 것이다. 반면, ㉡ 비보완적 방식은 어떤 브랜드의 약점이 다른 장점에 의해 상쇄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대안이 많을 때나 저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쓰인다. 비보완적 방식은 다시 사전편집, 순차적 제거, 결합, 분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전편집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1순위 기준에서 두 개 이상의 브랜드가 동점이라면 2순위 기준에서 다시 우수한 브랜드를 선택하면 된다. <표>에서 본다면, 1순위 기준인 '위치'에서 B와 C가 동점이므로 2순위 기준인 '가격'에서 C를 선택하는 식이다. 둘째, 순차적 제거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면 구매하겠다는 허용 수준을 설정하고 이와 비교하여 마지막까지 남은 브랜드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에서 1순위 기준인 '위치'의 허용 수준이 5라면 이 수준에 미달되는 A가 일단 제외되고, 2순위인 '가격'의 허용 수준이 6이라면 B가 다시 제외되고, 3순위인 '서비스'의 허용 수준이 2라면 다시 C가 제외됨으로써 결국 D가 선택될 것이다. 셋째, 결합 방식은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결정한 다음 기준별 브랜드 평가 점수가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허용 수준에 미달하면 이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표>에서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각 4라고 가정한다면 허용 수준에 미달되는 속성이 하나도 없는 A가 선택될 것이다. 넷째, 분리 방식은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은 뒤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에서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7로 잡는다면 가격 면에서 7 이상인 D만 선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 평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매할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마케터는 소비자들의 대안 평가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 세울 수 있다.

1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② 대상을 구분하고 가상의 사례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③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있다.
④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20.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에 주로 사용된다.
② ㉠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된다.
③ ㉡은 평가 기준 항목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은 브랜드의 어떤 약점이 다른 장점에 의해 보완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⑤ ㉡은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브랜드 간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21.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오른쪽 자료는 민영이 필기구를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라 A, B, C 브랜드에 부여한 평가 점수이다. 평가 기준은 가격, 디자인, 내구성만을 고려한다.

평가 기준		평가 점수		
항목	순위	A	B	C
가격	1	5	2	3
디자인	2	2	4	3
내구성	3	1	3	3

① 민영이 사전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A를 선택하겠군.
② 민영이 '가격'과 '디자인'의 순위를 바꾸어 사전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B를 선택하겠군.
③ 민영이 '가격'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순차적 제거 방식을 사용한다면 B를 먼저 제외하겠군.
④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결합 방식을 사용한다면 C를 선택하겠군.
⑤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분리 방식을 사용한다면 C를 선택하겠군

22.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립(樹立)할 ② 정립(定立)할
③ 설립(設立)할 ④ 제정(制定)할
⑤ 지정(指定)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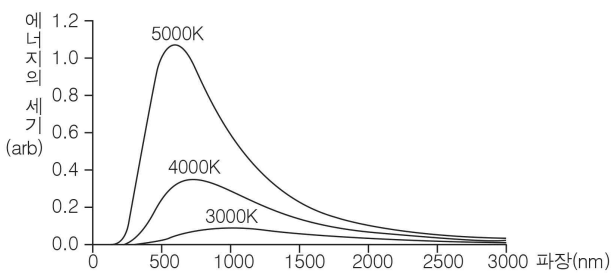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물체 표면의 색을 인지하는 것은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이 그것을 감지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낮에 거리에서 꽃을 보는 것은 꽃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다. 만약 태양과 같은 광원이 없다면 우리는 물체들의 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것일까?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뜨거운 물체는 햇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빛은 용암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뜨거운 용암은 매우 큰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열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원자들의 움직임이다. 이 원자들 속에 있는 전자들이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우리가 밤에도 용암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현상을 열복사라고 하며, 모든 물체는 열복사를 통해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더 많이 방출하는데,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길이는 380～750 nm 사이인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 사람의 피부는 온도가 낮아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따라 독특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표면에서 방출한다.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과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와의 관계는 흑체복사 곡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흑체란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반사되는 빛이 없는 이상적인 물체로, 이 물체가 빛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일정한 온도에 따라 흑체가 복사하는 파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을 흑체복사 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을 그린 그래프의 가로축은 파장, 세로축은 파장에 따라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 그래프의 넓이는 흑체에서 복사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흑체복사 곡선은 흑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이나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흑체의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프의 면적은 넓어지고, 에너지 세기의 최고점이 높아지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흑체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온도에 따라 다른 것은 온도에 따라 에너지 세기가 가장 높은 지점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흑체복사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별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태양의 파장 분포는 흑체복사 곡선에서 5,000 K* 의 파장 분포와 매우 흡사하므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000 K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 어떤 별들은 태양보다 파장이 더 짧은 영역에 해당하는 하얀색～파란색을 띤다. ㉡ 우리는 이런 별들의 표면 온도를 5,000 K 보다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K(켈빈) : 절대 온도의 단위.

23.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① 우리가 빛이 없는 밤에도 용암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②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기파의 파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③ 적외선과 가시광선 중 파장이 더 긴 것은 무엇일까?
④ 왜 깜깜한 밤에는 들판에 있는 꽃을 볼 수 없을까?
⑤ 얼음같이 차가운 물체도 전자기파를 방출할까?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석탄은 외부의 빛을 거의 모두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우리는 석탄을 볼 수 없지만, 석탄을 달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이때 석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은 약 900 K 이상에서 빨간색, 약 1,300 K 이상에서 주황색, 약 2,300 K 이상이 되면 노란색으로 달라진다.

① 광원이 없다면 달궈지지 않은 석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군.
② 석탄의 크기나 양을 달리해서 달궈도 온도가 같으면 석탄은 같은 색으로 빛나겠군.
③ 달궈진 석탄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나오기 때문이군.
④ 석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할수록 석탄이 방출하는 파장의 분포 곡선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넓어지겠군.
⑤ 석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할수록 석탄이 방출하는 파장의 분포 곡선에서 최고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군.

25. ㉠을 바탕으로 ㉡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온도가 높을수록 흑체에서 복사하는 에너지의 양은 많아진다.
②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에너지의 세기가 커진다.
③ 온도가 높을수록 흑체복사 곡선에서 최고점에 해당하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④ 태양보다 온도가 높은 별들은 태양에 비해 파장이 긴 전자기파도 더 많이 방출한다.
⑤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와 흑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축에서 공간이란 건축의 실체로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의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구획이 필요한데 이때 구획을 결정짓는 것은 벽체-바닥-천장이라는 3차원 구도를 구성하는 경계요소이다. 190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서양 건물은 경계요소에 의해 내·외부 공간이 엄격하게 차폐되는 형태를 보였다. 공간은 일률적으로 구획되었으며 물리적 구조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간은 기능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1909년 비엔나에 지어진 '로스하우스'이다. 이 건물은 지붕과 본체, 기단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각의 단순한 외형으로 지어졌다. 주거를 위해 계획된 이 건물은 한 치의 낭비도 없는 가지런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건물의 내부는 박스형 공간 구성을 하고 있으며 일체의 장식은 배제되었다. 건물의 외부는 내부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 창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기능주의 건축의 표본이 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서양 건축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능과 효율 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일군의 건축가들은 공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공간이 체험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 구성의 제약을 벗어난 비정형적 형태의 건물이 지어졌다.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연속되게 하거나 건물 내에 광장이나 공원을 만드는 시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신시내티의 '로젠탈 현대미술센터'는 기능주의 건축의 공간 인식을 탈피한 대표적 건물로 꼽을 수 있다. 이 건물은 거리의 영역을 연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도시의 카펫'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전면이 유리로 처리된 건물의 로비는 외부의 보행로와 연결되어 통로이자 전시실이 되고 공원이자 광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건물 곳곳의 작고 조밀한 공간들은 크기나 비례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거리감 역시 다르게 주어져 있다. 공간 체험자가 공간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공간은 사람들의 신념이나 의식이 담겨 물리적 형태로 구현된 것이다. 기능주의 건축이 효율 지향의 근대적 가치관을 드러낸다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서의 건축 경향은 조화와 예술의 시각에서 현대 문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②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공간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의 원리를 밝혀내고 있다.
⑤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여 공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7.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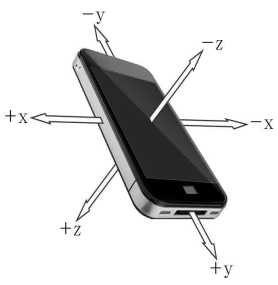
< 보 기 >

최근 건축가 A씨는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을 지었다. A씨는 크기와 비례가 다른 공간들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계단형의 독특한 건물을 완성시켰다. 내부 공간을 구분 짓는 벽은 미닫이로 만들어 공간의 변형이 자유롭도록 하고, 모임 장소나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물의 전면에는 대형 유리창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정원과 연결되도록 했으며,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로 외벽을 꾸며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① A씨가 계단형의 비정형적인 건물을 지은 것은 주거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로군.
② A씨가 건물의 전면에 대형 유리창을 설치한 것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로군.
③ A씨가 목재로 외벽을 꾸민 것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공간이 감성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 것이로군.
④ A씨가 벽을 미닫이로 만들어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간을 가변적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로군.
⑤ A씨가 크기와 비례가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결합한 것은 공간체험자가 공간의 상대성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로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마트폰을 기울여 가며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해 본 사람은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어떻게 화면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가속도 센서는 이러한 동작 인식에 사용되는 센서 중 하나로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를 검출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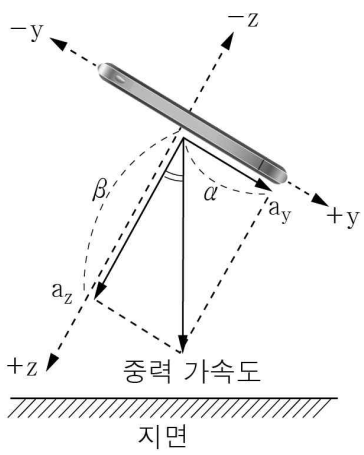


<그림 1>

가속도 센서가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x, y, z 세 축 방향에서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착안한 것이 3축 가속도 센서이다. <그림 1>과 같이 스마트폰 기기의 가로 방향을 x축, 세로 방향을 y축, 앞면과 뒷면 방향을 z축으로 하는 3축 가속도 센서의 값은 $<a_x, a_y, a_z>$와 같이 방향성을 가진 세 요소로 구성된다.

물체는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로 물체가 움직인 궤적을 파악하려면 중력으로 인한 가속도와 그 외의 힘으로 인한 가속도를 함께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중력가속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된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3축 가속도센서 작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예를 들어, ㉠ 3축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지면과 수평인 책상 위에 화면이 위로 가도록 평평하게 놓으면 정지된 상태에서도 중력가속도가 감지되므로 z축의 가속도 센서 값 a_z는 $9.8(m/s^2)$이 된다. x축과 y축은 중력가속도 방향과 이루는 각이 90°가 되어, x축과 y축의 가속도 센서 값은 0이 된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변화시킨 후 정지된 상태로 두면, z축이 아닌 다른 축의 가속도 센서도 중력가속도를 감지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력가속도 방향과 이루는 각이 90°인 축이 있다면 그 축의 가속도 센서 값은 0이 된다.



<그림 2>

<그림 2>는 3축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정지된 상태로, x축은 중력가속도 방향에 수직이지만 y축과 z축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y축 가속도 센서는 α의 가속도를, z축 가속도 센서는 β의 가속도를 감지한다. 즉, 가속도 센서 값 $<a_x, a_y, a_z>$는 <0, α, β>가 된다.

<그림 2>에서 a_y와 a_z의 값은 z축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z축이 <그림 2>보다 중력가속도 방향과 수직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면, z축의 가속도 센서 값은 기울기 변화 이전의 상태에서보다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또, z축이 <그림 2>보다 중력가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면, z축의 가속도 센서 값은 기울기 변화 이전의 상태에서보다 중력가속도에 가까운 값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지된 상태 각각에서의 가속도 센서 값을 비교하면 기울기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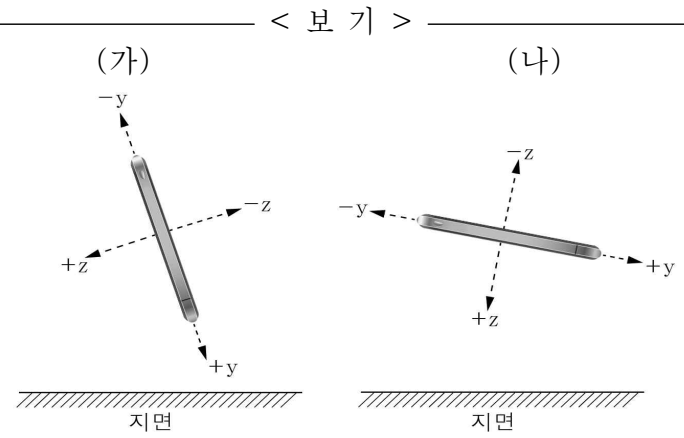
① 3축 가속도 센서의 값은 방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② 3축 가속도 센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작동한다.
③ 3축 가속도 센서는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를 검출하여 동작을 인식한다.
④ 3차원 공간에서의 동작 인식을 위해서는 가속도 센서 축 세 개가 필요하다.
⑤ 3축 가속도 센서의 축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가속도 센서 값과 무관하다.

29. ㉠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책상이 지면과 수평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아도 z축이 중력가속도 방향과 나란하지 않게 된다.
② 책상의 높이를 낮추면 스마트폰과 지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스마트폰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더 커지게 된다.
③ 스마트폰을 기울어진 상태로 놓으면 x, y, z축 중 어떤 것도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④ 스마트폰의 옆면을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으면 z축이 중력가속도 방향과 나란하게 된다.
⑤ 화면이 지면을 향하게 놓으면 x축이 중력가속도 방향과 나란하게 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 (나) 모두 3축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정지해 있는 상태로, <그림 2>와 비교할 때 지면을 기준으로 (가)는 스마트폰을 조금 더 세워 놓은 상태이고, (나)는 조금 더 눕혀 놓은 상태이다.

○ (가), (나) 모두 x축은 중력가속도에 수직이다.

① (가)의 y축 가속도 센서 값은 <그림 2>보다 크다.
② (가)의 z축 가속도 센서 값은 (나)보다 작다.
③ (나)의 z축 가속도 센서 값은 <그림 2>보다 크다.
④ (나)의 y축 가속도 센서 값은 (가)보다 크다.
⑤ (가), (나)의 x축 가속도 센서 값은 동일하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너이 오오래 정들이고 살다 간 집, 함부로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에, **앵도꽃**도 **오얏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A] 다섯 물과, 여섯 바다와, 철이야, 아득한 구름 밖 아득한 하늘가에 나는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서는 게냐.

달 밝으면 으레 뜰에 앉아 부는 내 피리의 서른 가락도 너는 못 듣고, 골을 헤치며 산에 올라 아침마다, 푸른 봉우리에 올라서면, 어어이 어어이 소리 높여 부르는 나의 음성도 너는 못 듣는다.

어서 너는 오너라. 별들 서로 구슬피 헤어지고, **별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 흩어졌던 너이 **형 아우** 총총히 돌아오고, 흩어졌던 네 **순이**도 **누이**도 돌아오고, 너와 나와 자라난, 막쇠도 돌이도 복술이도 **왔다**.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 비둘기와 꽃다발과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너는 오너라…….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나와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젖빛 구름, 보오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늴늴늴 가락 맞춰 **풀피리나 불고**, 나는, 나는, 두둥싯 두둥실 **붕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딩굴어 보자.**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쉼표의 잦은 사용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너'와의 거리에서 오는 '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② '너'로 인해 떠올린 고향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③ '너'에게 조금씩 다가서면서 느끼는 '나'의 설렘이 나타나 있다.
④ '너'에게 미처 다가서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⑤ '너'와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이 나타나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어서 정든 집으로 귀환(歸還)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그렇게 돌아온 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① 1연에서 '복사꽃', '살구꽃', '앵도꽃', '오얏꽃' 등이 '피었다고' 한 것은 '너'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② 4연에서 '형', '아우', '순이', '누이' 등이 이미 '왔다'고 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데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너'의 귀환을 재촉하는 것이겠군.
③ 4연의 '별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과 6연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딩굴어 보자'로 보아, 함께 만들어 갈 세계는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겠군.
④ 5연의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와 6연의 '종달새는 운다'로 보아,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너'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6연의 '풀피리나 불고'와 '붕새춤 추며'는 '너'의 귀환이 이루어진 후 '너'와 함께 만들어 갈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져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뭣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뜨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두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 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간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딴딴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거주춤 서 있었다. 영달이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땔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 "댁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녜요. 불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영달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중략)

그들은 일곱시쯤에 감천 [읍내] 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오?"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구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팥시루떡을 사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 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34. ⓐ와 ⓑ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요약적 서술로 사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삼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④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⑤ 배경 제시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5. ㉮에 이어서 '정씨'가 할 수 있는 말을 <보기>와 같이 구성하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게다가 백화가 일자리도 주선해 준다고 하는데 [ ] 아니겠소?"

① 일석이조(一石二鳥)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⑤ 금의환향(錦衣還鄕)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길은 인생의 행로로서 그 길을 걷는 이들의 삶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는 떠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연히 길 위에서 마주쳐 동행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동행은 일시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낯선 타인의 관계에서 벗어나 유대감과 온정을 느끼게 된다.

① '산골 마을'을 지나는 인물들이 추위와 허기 속에서도 여정을 계속하는 것에서 고달픈 떠돌이의 삶을 읽을 수 있군.
② '폐가'는 '불가'에 다가앉아 온기를 느끼는 일시적인 쉼터가 된다고 할 수 있군.
③ '읍내'는 백화와 영달, 정씨와 같이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들을 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④ '장터'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팥시루떡'을 나누는 모습에서 인물들 사이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군.
⑤ '역'은 백화가 '고향'으로 가면서 세 인물의 동행이 끝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 영달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정씨는 영달의 처지를 고려하여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백화에 대한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⑤ ㉤: 정씨와 영달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 간은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알고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 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리기를,

"못난 여손(女孫) 심청이는 아비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추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심 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심 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이레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안에 너를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 가면서 동냥 젖 얻어 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四窮之首)* 된단 말이냐?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마는 사람 사다 제사하는 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눈 먼 놈의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옛글을 모르느냐? 칠년대한(七年大旱) 가물 적에 사람으로 빌라 하니 탕 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을 정히 하여 상임 뜰에 빌었더니 수천 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네 이놈 상놈들아.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마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 소저의 효성과 심 봉사의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하고 쌀 2백 석과 돈 3백 냥이며, 무명 삼베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2백 석과 돈 3백 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심 봉사에게 바칩시다. 2백 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삼베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 소저를 가자 할 때, 무릉촌 장 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 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쌀 3백 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쌀 3백 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 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 소저가 여쭈었다.

[A]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백 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하릴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 「심청전」 —

* 사궁지수(四窮之首) : 늙어서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자식 없는 늙은이'를 가리킴.

38.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대화를 위주로 서술하여 사건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③ 현실과 환상을 교차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39.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희생과 보상의 관계를 통해 서사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희생 자체가 갈등의 산물인 경우가 많으며, 이 희생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보상은 희생 자체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희생으로 인해 유발된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① 심청의 희생은 심 봉사가 눈뜨기를 바라는 심청의 욕구와 공양미를 시주할 수 없는 가난한 현실 간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② 사당에 하직을 고하는 심청의 언행은 자신의 희생이 조상에 대한 불효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효를 위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심청과 이에 반대하는 심 봉사 간의 대립은 심청의 희생 결정이 불러일으킨 갈등으로 볼 수 있다.
④ 동네 사람들이 심 봉사를 위로하는 모습은 심청의 희생으로 유발된 심 봉사와 동네 사람들 간의 갈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뱃사람들이 심 봉사를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40. [A]의 '승상 부인'과 '심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 부인	심청과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심청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며 심청의 결심을 만류하고 있다.	②
심청	과거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한탄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승상 부인의 제안 수용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들어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	④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속 이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지어 하늘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콸콸,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쏼쏼,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져 지방져 부풀어 오르고 평평해지고, 가지 되고 방울 되어, 저 건너 병풍석(屛風石)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유산가(遊山歌)」－

* 기산 영수(箕山潁水) : 중국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명리(名利)를 피하여 은거한 곳.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햐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만흥(漫興)」－

* 햐암 :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럴 : 부러워할.

4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4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의성·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43.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감엔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남엔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① '알맞게 먹'고 '슬카지 노니'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③ '성이 게으르'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④ '나'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툴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임금 은혜'를 '갚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기 :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 ⓐ <u>(안타깝게) 선생님…….</u>

회기 :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 ⓑ <u>(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u>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중략)

금숙 : 아까 그 환자에게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요…… 가엾잖아요?

회기 : 가엾은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금숙 :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회기 :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냉정했을까?

금숙 :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회기 : (깊은 생각에 잠기며)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의(醫)는 인술(仁術)'이니 뭐니 하여 의사를 무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건, 남자건, 미인이건, 늙은이건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니 말야…….

금숙 :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 내지 않아요?

회기 :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외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 본 수술을 해 본다는 호기심과 이걸 배워 가지고 가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공명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도 못했거든! (하며 담배 연기를 푹푹 뱉는다.)

금숙 : (약간 당황하며) 전 자세한 얘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그리고…….

회기 : 그리고?

금숙 :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회기 : ⓒ <u>(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u> 미스 정은 정말 지레 짐작도 잘 하는군! 그야말로 오버센스야!

금숙 : (무안해지며) 예?

회기 : 결혼과 의학과 무슨 상관있어. 내가 서른다섯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내 취미지 누구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금숙 :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분이 어째서…….

회기 : ⓓ <u>(단호하게 단정을 내리듯) 마음이 쏠리지 않는 일은 도대체가 하기 싫단 말이지.</u>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금숙 :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회기 :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나?

금숙 : (수줍음을 감추며) 독신보다는 덜 외롭겠죠…….

회기 : (멀거니 금숙을 쳐다보며) 그럼, 미스 정은 왜 결혼을 안 하지?

금숙 : ⓔ <u>(당황하며)</u> 예? 저야…… 뭐…….

회기 : 스물여덟이면 나보다 더 급하지 않아? 어때?

금숙 : (동요되는 마음을 저지하려고 무척 애쓰며) 그건……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요…….

회기 : 생각?

금숙 : (나지막하나 또렷하게) 저는 이런 생활이 결혼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 차범석, 「성난 기계」–

44. ⓐ ~ ⓔ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회기'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게 말하세요.
② ⓑ : '인옥'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것이 느껴지게 연기하세요.
③ ⓒ : '금숙'의 말에 만족하여 침울했던 마음이 풀린 듯이 연기하세요.
④ ⓓ : 대사의 내용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말하세요.
⑤ ⓔ :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하세요.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어 버린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한 현실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인간의 태도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여 그러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① '회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인옥'이 일하고 있는 어두운 공장은 이들을 둘러싼 비정한 현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회기'에게 기계와 같다고 말하는 '인옥'에게서 비정한 의식을 지니게 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③ 의사로서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 못했다는 '회기'의 말에서 비정한 현실의 영향이 그의 의식에까지 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인옥'과 '금숙'을 대하는 '회기'의 태도는 그가 비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인옥'의 처지를 생각하는 '금숙'의 말이나 '회기'에 대한 '금숙'의 태도에서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